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황 남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년층의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가활동부족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자연친화형, 친목교류형의 5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중 여가활동 참여시간이 다른 유형의 1/4~1/7 수준인 여가활동부족형이 전체 노년층의 약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년층의 상당수는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일상생활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고, 수발가족이 있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고연령의 여성일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고, 도지역에 거주할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구에 속하며 건강수준이 낮고, 수발가족이 있는 여성노인이 노년층 여가정책의 최우선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여가활동 유형화, 여가활동, 여가 만족, 노년층

본고는 국민연금연구원 주관 제4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2013년 9월 27일)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본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박사님과 익명의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 투고일: 2014.1.27 ■ 수정일: 2014.5.9 ■ 게재확정일: 2014.6.5

I. 서론

노인이 경험하는 4가지 고통(빈곤, 질병, 무위, 고독) 중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질병과 빈곤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위와 고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노인복지 관련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많은 논란 끝에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고 수급액도 상향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 1위(2011년 기준 48.6%)를 유지하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속적인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수 확충 등을 통해 노년층이 보다 오래 노동시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의 복지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구조는 노년층으로 진입하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과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생활의 대부분을 여가로 보내야 하는 구조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정년보장의 문화가 점차 퇴색되고 퇴직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노년층의 여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 노년층이 더욱 길어진 노년기를 자원봉사, 여가생활과 연계한 재능기부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에서 현세대 노년층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년층은 현재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 속에서 원치 않는 여가로 인해 무위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나향진, 2004). 노년층의 여가는 심신의 피로회복과 즐거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층의 여가와 달리 무료함이라는 문제와 관련 있으며 이것이 노년층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현, 2007).

한편 인구구성 비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예비노년층이지만, 2028년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들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태도 좋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현재 노년층의 여가활동이 TV 시청 및 휴식 등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이었다면, 예비노년층은 자기계발과 자원봉사 등 보다 활기차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비노년층의

축적된 지식과 재능 등이 사회참여를 통해 다른 세대에게 (혹은 동년 집단에게) 공유될 때 노인은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이라는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삶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강좌 수강 및 모임 등을 통한 여가활동은 노인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증대시키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 도구를 통해 노인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의 특정한 여가활동은 재능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지거나,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활발한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증진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사전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에서 노년층의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분야에 역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사회참여는 주로 노년층의 근로활동을 비중있게 다루며, 여가활동은 여전히 정책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노년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제시하며, 그 실행방안으로 문화취약 노년층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을 점검한 후에 목표집단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년층의 여가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노년층 여가 관련 연구는 여가 및 여가형태에 대한 담론적 논의나 연구자의 관심에 맞춰 특정 지역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전국적인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실태를 파악하고 여가활동 유형화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 집단 선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자료 제공의 축적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참여 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 후,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살펴보고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V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여가의 개념 및 효과, 여가활동 유형화, 여가활동의 영향요인, 여가활동의 효과 및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효과성을 다루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먼저 여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Parker(1971)는 여가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는 잔여적 시간으로 보았다. 즉 총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과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여가로 보는 것이다. 그에 반해 여가활동의 내용과 기능을 중시하여 여가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가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특정 가치에 합치하는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규정하면 가장 협의의 여가가 된다(김태현, 2007). 허준수(2002)는 노동 또는 가족에 대한 의무,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기분전환, 지식확장, 자발적 사회활동 참여 등 개인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여가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가는 기본적으로 잔여적 시간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여가활동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실증분석 보다는 담론적 논의 위주로 이루어졌다. Hooyman & Kiyak(1996)은 여가활동의 유형을 적극적 여가활동, 수동적 여가활동, 사회문화적 여가활동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적극적 여가활동(active leisure activity)은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이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활동들이며, 수동적 여가활동(passive leisure activity)은 라디오 청취, 음악감상 등 적극적인 노력없이 향유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분류된다. 사회문화적 여가활동(social and cultural leisure activity)은 영화감상, 스포츠관람 등 수동적 여가활동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활동들이다. 반면 김태현(2007)은 개념적으로 노년층의 여가활동을 5가지 유형인 단독충실형, 우인교류형, 가족충실형, 사회참여형, 독서형으로 구분하였다. 단독충실형은 미술이나 음악감상, 서예, 다도 등 혼자 여가활동을 즐기는 유형이며, 반면에 우인교류형은 친구 또는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다. 가족충실형은 정원손질, 가옥의 미화작업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며, 사회참여형은 봉사활동 및 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독서형은 책을 읽거나 기사 스크랩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기반으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유형화 실시할 것이다.

한편 노년층의 여가활동은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며(이천희, 1982), 은퇴이후 고독감 및 소외감, 무료감을 해소해주며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Ljungquist & Sundstrom, 1996; Lennartsson & Silverstein, 2001; Jenkins et al., 2001; 허준수, 2002에서 재인용). 여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본 연구에서도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고(김남진, 1999),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수동적 여가활동에 비해 생활만족도와 더욱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Iso-Ahola, 1980; 허준수, 2002에서 재인용). 그리고 노년층의 경제수준 및 건강수준은 노년층의 여가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insley, et al., 1987; McGuire, 1984; Searle & Iso-Ahola, 1988; Riddick & Stewart, 1994; 허준수, 2002).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여가활동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은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유형 영향요인을 분석할 때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전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그동안 국내연구들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로 특정 지역에 국한한 소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이천희, 1982; 김남진, 1999; 허준수, 2002). 그러나 2005년부터 국민노후보장패널이 국가승인통계로 구축되어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여가활동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노년층을 포괄하는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해 보다 정교한 계량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 후 여가활동유형별 영향요인 등 추가분석을 실시한다. 개념적 조작 혹은 빈도분석을 통한 분석이 아니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유형화 작업을 진행한다. 여가활동유형별 영향요인은 노년층 여가활동 지원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층의 여가활동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여가활동유형이 여가활동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층 여가활동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활동유형별로 영향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여가활동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4차 자료를 이용하였다¹⁾.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및 노후 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태,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2005년부터 격년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써, 현재 4차까지 활용 가능하다²⁾. 본 연구의 목적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국민노후보장패널은 본 연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³⁾.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여가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개인자료에서 지난 일주일 간 여가시간에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과 같이 20개의 항목에서 3순위까지 조사하고 있다. ①목욕, 낮잠 등 ②TV시청, 라디오 청취 ③요가, 단전호흡, 묵상 ④컴퓨터 인터넷 ⑤독서 ⑥화초·정원손질, 텃밭 가꾸기, 애완동물 기르기 ⑦놀이(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⑧노인학교, 교양강좌, 사회교육원, 복지관 내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 ⑨공연 또는

1) 제4차 학술대회용 베타버전이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가문화활동을 얼마나 자주하는지에 대해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에는 적절하지 않다.

전시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 ⑩서예, 사군자, 그림, 노래, 춤 등 창조적 활동 ⑪혼자하는 운동(조깅, 낚시, 산책, 등산, 수영 등) ⑫여럿이 하는 운동(배드민턴, 춤, 족구 등) ⑬소풍, 관광 등 여행 ⑭가족동반 외식, 외출 ⑮가족돌보기(손자녀 등) ⑯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 동네주민과의 대화 ⑰사회봉사활동 ⑱종교활동 ⑲정치단체나 사회단체 활동 ⑳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그러나 일부 항목은 본 연구의 여가활동 범위와 상이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항목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분류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류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된 항목은 ①목욕, 낮잠 등 ⑭가족동반 외식, 외출 ⑮가족돌보기(손자녀 등) ⑯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 동네주민과의 대화이며, 이들 항목은 여가활동이라기 보다는 일상생활활동(①, ⑭, ⑯)에 가깝거나 무급가사활동(⑮)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③요가, 단전호흡, 목상 ⑪혼자하는 운동(조깅, 낚시, 산책, 등산, 수영 등) ⑫여럿이 하는 운동(배드민턴, 춤, 족구 등)은 모두 운동과 관련된 여가활동이므로 운동참여로 재분류한다. 또한 ⑤독서와 ⑧노인학교, 교양강좌, 사회교육원, 복지관 내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은 자기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통합·분류하고, ⑨공연 또는 전시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과 ⑩서예, 사군자, 그림, 노래, 춤 등 창조적 활동은 각각의 여가활동 참여비율이 매우 낮고 협의의 여가문화활동 개념에 포함된다는 유사점에 의해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으로 통합하였다.

2. 기초통계

65세 이상 노년층의 여가활동별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에 참여하는 비율이 93.3%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노년층이 생활의 일정 부분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노년층은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 32.8%, 친목활동 23.9%, 종교활동 17.6%, 화초·정원손질, 애완동물 기르기 등 15.4%, 화투·장기·바둑·카드 등의 놀이 10.2%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독서 등 자기개발 8.6%, 컴퓨터 인터넷 활용 3.2%,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참여 1.4%, 소풍·관광 등 여행 1.2%,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 0.9%로 참여비율이 낮았다.

여가활동별 참여시간은 참여비율에 비해 활동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각 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평균 참여시간을 살펴본 결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참여시간이 주당 15시간 54분으로 가장 길며, 그 다음 컴퓨터 인터넷과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이 9시간 6분이었다. 그리고 화투, 장기 등의 놀이 8시간 42분, 복지관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 8시간, 소풍, 관광 등 여행 7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평균 참여시간이 가장 적은 활동은 종교활동으로 주당 4시간 48분이며, 그 다음이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으로 5시간 24분이었다. 즉 우리나라 노년층의 여가활동은 미디어매체 활용과 같은 수동적인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등 사회참여와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의 참여비중이 1% 내외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시간은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와 컴퓨터 인터넷 등 수동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이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되지만,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표 1. 여가활동 참여실태

(단위: %, 일:시간:분)

구분	참여비율	참여시간		
		평균	최소	최대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93.3	15:54	1:00	6:02:00
운동참여	32.8	6:42	0:30	4:08:00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23.9	6:36	0:30	2:12:00
종교활동	17.6	4:48	1:00	2:16:00
화초·정원손질, 애완동물 기르기 등	15.4	7:30	0:18	1:21:00
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10.2	8:42	1:00	2:02:00
복지관 프로그램, 독서 등 자기개발	8.6	8:00	1:00	1:16:00
컴퓨터 인터넷	3.2	9:06	1:00	1:18:00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참여	1.4	5:24	1:00	1:02:00
소풍, 관광 등 여행	1.2	7:00	1:00	1:02:00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등) 및 창조적 활동(서예, 사군자, 춤 등)	0.9	9:06	2:00	1:04:00

주: 1) 4차 개인횡단가중치 적용.

2) 주말과 주중을 구분하지 않고 1주일간 여가활동참여 형태이며, 참여시간은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취업유무별 여가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유형별 참여율이 높은 편이지만, 계모임 등의 친목활동과 화초·정원가꾸기, 화투·장기 등의 놀이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순서대로 5.2%, 8.5%, 3.7% 높음)이 특징이다. 여가활동유형별 참여시간 또한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더 많은 편이지만, 종교활동과 화초·정원가꾸기 등의 활동은 취업자가 약 1시간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취업유무별 여가활동 참여실태

(단위: %, 시간:분)

구분	미취업 (N=2,837)		취업 (N=1,222)	
	참여비율	참여시간	참여비율	참여시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93.3	17:00	93.3	13:06
운동참여	34.1	6:54	29.8	5:54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22.4	7:06	27.6	5:30
종교활동	20.0	4:30	12.0	5:48
화초·정원손질, 애완동물 기르기 등	12.9	7:06	21.4	8:06
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9.1	9:18	12.8	7:36
복지관 프로그램, 독서 등 자기개발	10.4	8:00	4.3	7:30
컴퓨터 인터넷	3.2	10:12	3.2	6:24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참여	1.4	5:48	1.3	4:24
쇼핑, 관광 등 여행	1.3	7:24	1.2	5:48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등) 및 창조적 활동(서예, 사군자, 춤 등)	1.0	9:24	0.6	8:18

주: 1) 4차 개인횡단가중치 적용.

2) 주말과 주중을 구분하지 않고 1주일간 여가활동참여 형태이며, 참여시간은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노년층을 65~74세의 전기노인과 75세 이상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여가활동실태를 살펴보면(표 3 참조),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해 참여비율이 더 높지만 화투, 장기 등의 놀이는 후기노인이 2.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연령에 상관없이 낮은 편이지만, 전기노인이 4.5%로 후기노인 1.5%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치이다. 이는 노년층 연령집단 간에 IT기기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가활동 참여시간도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해 더 많은 편이지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후기노인이 전기노인에 비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에 1시간, 친목활동과 인터넷활동에 2시간, 여행에 3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부별로 여가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표 4 참조), 비빈곤가구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참여시간은 활동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빈곤여부는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빈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으면 비빈곤으로 분류하였다.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운동참여, 종교활동, 화초·정원손질, 화투·장기 등은 빈곤가구에서 참여시간이 더 많지만, 자기개발,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 여행 등은 비빈곤가구에서 참여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집단별 여가활동 참여실태

(단위: %, 시간:분)

구분	전기노인 (N=2,485)		후기노인 (N=1,574)	
	참여비율	참여시간	참여비율	참여시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93.4	15:30	93.1	16:24
운동참여	37.9	6:54	26.1	6:12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25.3	5:54	22.1	7:42
종교활동	17.5	5:12	17.8	4:18
화초·정원손질, 애완동물 기르기 등	16.8	7:42	13.4	7:06
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9.1	8:48	11.6	8:36
복지관 프로그램, 독서 등 자기개발	8.4	8:24	9.0	7:24
컴퓨터 인터넷	4.5	8:42	1.5	10:48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참여	1.6	5:36	1.0	4:54
소풍, 관광 등 여행	1.6	6:12	0.8	9:06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등) 및 창조적 활동(서예, 사군자, 춤 등)	1.2	9:24	0.5	8:18

주: 1) 4차 개인횡단가중치 적용.

2) 전기노인은 65~74세, 후기노인은 75~90세까지임.

3) 주말과 주중을 구분하지 않고 1주일간 여가활동참여 형태이며, 참여시간은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그러나 여가활동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운동시간은 비빈곤노인에 비해 약 40분 많은 편이지만, 참여비율은 26.6%로 비빈곤노인의 40.2%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빈곤노인들의 운동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빈곤노인들의 운동참여수준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상태가 비빈곤노인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빈곤여부별 여가활동 참여실태

(단위: %, 시간:분)

구분	빈곤 (N=1,839)		비빈곤 (N=1,869)	
	참여비율	참여시간	참여비율	참여시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93.5	16:18	92.6	15:00
운동참여	26.6	7:06	40.2	6:24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23.6	6:42	25.2	6:24
종교활동	16.0	5:06	20.7	4:30
화초·정원손질, 애완동물 기르기 등	15.5	7:48	14.1	6:48
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9.6	9:30	9.3	7:06
복지관 프로그램, 독서 등 자기개발	6.0	7:18	11.7	8:00
컴퓨터 인터넷	1.1	8:12	5.5	9:12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참여	0.9	4:42	1.9	5:12
소풍, 관광 등 여행	0.9	4:30	1.5	9:00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등) 및 창조적 활동(서예, 사군자, 춤 등)	0.7	8:36	1.2	9:24

주: 1) 4차 개인횡단가중치 적용.

2)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경우 빈곤, 낮은 경우 비빈곤으로 분류함.

3) 주말과 주중을 구분하지 않고 1주일간 여가활동참여 형태이며, 참여시간은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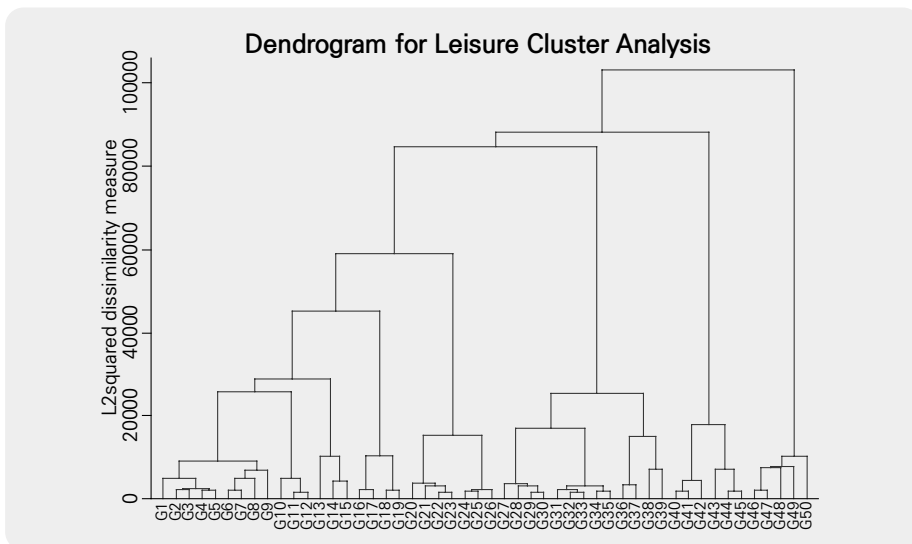
비빈곤노인의 복지관 프로그램, 독서 등 자기개발은 빈곤노인에 비해 참여율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빈곤노인의 복지관·노인교실 등 프로그램 참여비율이 4.9%인 반면 비빈곤노인은 7.2%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빈곤여부에 따른 노년층의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참여율 발생원인을 세밀히 파악하여, 빈곤노인의 여가시설을 통한 여가활동 장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노년층의 여가활동유형화를 위해 여가활동별 참여시간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군집을 형성할 때 위계존재여부에 따라 비위계적 군집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으로 구분된다. 비위계적 군집분석은 군집을 형성하는데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위계적 군집분석은 위계가 존재하여 하나의 군집에 속하게 된 두 개체는 다시 흩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초기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군집의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에서 자유롭고,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이용하여 군집 수의 결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위계적 군집분석의 덴드로그램



주: 지면제약으로 관측치 50개에 대한 그림을 제시함.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표 5>와 같이 총 5개⁴⁾의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F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유형을 살펴보면 유형1~유형4는 특정한 여가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유형5는 두드러지는 여가활동이 없으며 총여가활동 참여시간의 절대적인 규모도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군집유형별 여가활동 참여시간

(단위: 시간:분, 명,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운동참여	3:46	1:32	1:49	10:57	0:45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21:53	1:11	0:58	0:40	1:09
종교활동	0:17	0:29	0:40	1:01	0:52
화초·정원손질, 애완동물 기르기 등	1:07	12:41	0:43	0:10	0:14
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2:40	0:31	11:38	0:09	0:10
복지관 프로그램, 독서 등 자기개발	0:07	0:16	0:04	0:46	0:46
컴퓨터 인터넷	0:07	0:00	0:01	1:01	0:09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참여	0:02	0:01	0:00	0:06	0:05
소풍, 관광 등 여행	0:05	0:11	0:00	0:08	0:03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등) 및 창조적 활동(서예, 사군자, 춤 등)	0:07	0:01	0:01	0:10	0:07
전체 ¹⁾	30:10	16:52	15:52	15:08	4:19
N(=4,059) (%)	121 (3.0)	308 (7.6)	239 (5.9)	466 (11.5)	2,925 (72.0)
유형분류	친목 교류형	자연 지향형	정적 놀이형	운동 참여형	여가활동 부족형

주: 1) $F(4, 4,054)=645.01$ ***, *** $p<0.001$, ** $p<0.05$, * $p<0.01$

2) 주말과 주중을 구분하지 않고 1주일간 여가활동참여 형태이며, 참여시간은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⁴⁾ 군집수는 5개와 6개가 고려되었지만, [그림 1]의 덴드로그램과 같이 6개의 경우 유형6이 97명, 즉 2.4%로 너무 작고 유형1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 군집수는 5개로 선택되었다. 군집수가 6개일 경우 유형1은 2,828명, 69.7%로 감소하였다.

유형1은 계모임 및 노인정 등 친목활동이 21시간 53분으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층의 약 3%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유형1은 ‘친목교류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화초·정원손질과 애완동물 기르기에 12시간 41분의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노인층의 약 7.6%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형2는 ‘자연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3은 화투·장기·바둑·카드놀이에 11시간 38분을 보내며 전체 노인층의 약 5.9%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유형3은 ‘정적놀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4는 등산·배드민턴·요가 등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10시 57분이며, 전체 노인의 약 11.5%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유형4는 ‘운동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5는 전체 노인의 72%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유형이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드러진 여가활동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주당 여가활동참여시간이 4시간 19분으로 적은 편이므로(유형1~유형4는 15~30시간) ‘여가활동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6. 군집유형별 여가활동 참여비율

(단위: %, 개)

구분	친목 교류형	자연 지향형	정적 놀이형	운동 참여형	여가활동 부족형
운동참여	38.8	23.4	28.0	98.3	23.1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100	20.1	20.5	16.1	24.0
종교활동	8.3	11.4	12.1	21.9	17.9
화초·정원손질, 애완동물 기르기 등	17.4	100	12.1	5.8	9.2
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19.0	7.8	100	2.4	4.4
복지관 프로그램, 독서 등 자기개발	4.1	3.3	1.3	12.7	9.3
컴퓨터 인터넷	0.8	0	0.4	6.9	2.7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참여	0.8	0.3	0	1.3	1.6
소풍, 관광 등 여행	1.7	2.0	0	1.3	1.0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등) 및 창조적 활동(서예, 사군자, 춤 등)	0.8	0.3	0.4	1.5	1.2
평균 활동 수 ¹⁾	1.92	1.69	1.75	1.68	0.94

주: 1) F(4, 4,054)=153.03)***, *** p<0.001, ** p<0.05, * p<0.01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한편 군집유형별로 여가활동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친목교류형은 친목활동, 자연지향형은 화초·정원손질 등, 정적놀이형은 화투·장기 등에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동참여형도 운동참여비율이 98.3%로 높고, 여가활동부족형은 운동참여에 23.1%, 친목활동에 24.0%, 종교활동에 17.9%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수는 여가활동부족형이 0.94개로 가장 작고, 그 외 유형은 1.92~1.68개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2.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종속변수는 군집분석 결과 각 유형에 해당되는 관측치는 1, 그렇지 않은 관측치는 0으로 코딩하여 총 5가지 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은 개인자료의 여가활동 참여실태 변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유형의 주요 영향요인의 하나가 경제상태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가구자료를 병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자료에서 활용한 변수는 가구빈곤여부와 가구소득,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정보이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348명은 로짓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 요인분석에 사용된 분석대상은 최종 3,678명이 되었다. 다행히 분석에서 제외된 관측치는 5가지 유형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구성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부표 2 참조).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는 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 또한 72~74세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각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친목교류형은 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86.6%), 도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편(78.6%)이다. 그리고 일상 및 사회활동제한이 있는 비율이 4.5%로 가장 낮고, 손자녀 돌봄 혹은 간병 등의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지향형은 유배우자비율과 도 지역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78.4%, 80.2%), 서울 지역 거주비율은 가장 낮았다(5.9%). 교육수준의 초졸비율과 취업비율 또한 가장 높았다(모두 45.0%). 그리고 자가 거주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85.0%). 정적놀이형은 여성 및 무학 비율이 가장 높고(66.1%, 41.3%), 만성질환보유

표 7.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 분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여가활동 부족형	χ^2/F -test
성별	남	42.0	46.9	33.9	56.6	39.9	49.94***
	여	58.0	53.1	66.1	43.4	60.1	
배우자유무	무	33.0	21.6	43.4	27.5	36.4	40.04***
	유	67.0	78.4	56.6	72.5	63.6	
자녀동거여부	아니오	80.4	75.1	82.5	73.5	74.8	8.03*
	예	19.6	24.9	17.5	26.5	25.2	
주택점유유형	자가 이외	13.4	15.0	21.2	22.3	22.7	13.53***
	자가	86.6	85.0	78.8	77.7	77.3	
거주지역	서울	8.9	5.9	6.9	25.4	18.8	131.62***
	광역시	12.5	13.9	19.6	29.4	24.8	
	도	78.6	80.2	73.5	45.2	56.4	
교육수준	무학	40.2	25.3	41.3	14.0	33.0	122.84***
	초졸	35.7	45.0	36.5	32.9	34.1	
	중졸이상	24.1	29.7	22.2	53.1	32.9	
취업여부	아니오	73.2	55.0	61.9	79.6	70.1	54.08***
	예	26.8	45.0	38.1	20.4	29.9	
만성질환유무	무	51.8	52.0	44.4	52.1	45.0	12.59**
	유	48.2	48.0	55.6	47.9	55.0	
일상 및 사회 활동제한여부	아니오	95.5	92.7	91.0	90.3	84.6	33.51***
	예	4.5	7.3	9.0	9.7	15.4	
가족돌봄여부	아니오	100	96.3	96.3	98.6	96.2	10.25**
	예	0	3.7	3.7	1.4	3.8	
빈곤가구여부	아니오	46.4	48.7	45.5	60.4	49.5	20.71***
	예	53.6	51.3	54.5	39.6	50.5	
연령 (세)		74.4	72.5	74.3	71.9	73.7	F(4, 3,673) =12.70***
가구원수(명)		2.3	2.4	2.1	2.4	2.4	F(4, 3,673) =1.82
소득 (천원)		1,268.6	1,369.5	1,260.9	1,795.8	1,482.1	F(4, 3,673) =5.38***
자산 (백만원)		147.2	143.7	145.4	280.4	189.0	F(4, 3,673) =7.56***
부채 (백만원)		10.6	10.3	8.7	25.1	18.2	F(4, 3,673) =3.90**

주: 1) 결측치를 제외한 3,678명에 대한 통계치임.

2) 소득 및 자산, 부채는 모형에서 가구원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균등화하지 않은 수치를 그대로 활용함.

3) *** p<0.01, ** p<0.05, * p<0.1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및 빈곤가구비율 또한 가장 높았다(55.6%, 54.5%). 반면 유배우자 및 자녀동거비율은 가장 낮았다(56.6%, 17.5%). 이러한 정적놀이형의 특징은 주로 성별이 여성노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추측된다.

운동참여형은 남성 및 자녀동거, 서울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56.6%, 26.5%, 25.4%), 교육수준 및 경제상태 또한 가장 높았다(중졸 이상 53.1%). 경제상태는 가구소득과 가구자산, 가구부채로 살펴보았으며, 세 가지 모두 운동참여형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운동참여형은 가구부채 규모가 가장 크지만, 가구자산 및 가구소득도 다른 유형에 비해 크기 때문에 경제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취업 및 빈곤비율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20.4%, 39.6%). 여가활동부족형은 비록 수치는 작지만 수발하는 가족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3.8%), 서울지역 거주비율(18.8%) 및 여성 비율(60.1%), 경제수준이 모든 유형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만성질환보유율도 정적놀이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55.0%), 일상 및 사회활동제한 비율은 가장 높았다(15.4%). 반면 자가거주비율은 가장 낮았다(77.3%).

이상의 결과 친목교류형은 건강수준이 양호하고, 자연친화형은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적놀이형은 가족자원 및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운동참여형은 경제수준이 가장 높고, 여가활동부족형은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점유주택의 자가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건강수준, 가족돌봄여부, 경제수준⁵⁾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녀동거유무와 가구원수, 빈곤가구여부는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표 9>의 한계효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지역과 취업여부는 모든 여가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을 기준으로 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친목교류형과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운동참여형과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취업자인 경우 자연지향형과 정적놀이형, 여가활동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친목교류형과 운동참여형에 포함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취업자일 경우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간제약 하에서 여가와 일의 선택은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5) 가구소득과 자산, 부채는 정규분포를 위해 로그값을 취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각 유형별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친목교류형은 교육수준과 일상활동제한여부, 가구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를 기준으로 증 줄이상이거나, 일상활동제한에 있는 경우 친목교류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5%와 -1.9%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구자산이 증가할수록 친목교류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그 규모는 0.3%로 크지 않았다. 자연지향형은 배우자유무와 교육수준, 일상활동 제한여부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유배우자인 경우와 무학 기준으로 교육수준이 초졸인 경우는 자연지향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각각 2.9%와 2.4% 증가하였다. 또한 일 상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자연지향형에 속할 가능성이 -2.3% 감소하였다.

정적놀이형은 모든 유형에 공통적인 영향요인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요인이 없었다. 운동참여형은 연령과 성별, 자가여부, 교육수준, 건강 수준, 가족돌봄여부, 가구소득과 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자가에 거주할 경우 운동참여형에 속할 가능 성이 각각 -0.5%와 -5.3%, -3.2% 감소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와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경우 운동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2.0%와 -2.8%, -6.1% 감소하였다. 반면 무학 기준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구자산이 증가할수록 운동참여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각각 4.8~7.0%, 1.4%, 0.4%씩 증가하였다.

표 8. 여가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로짓모형

종속변수: 1=각 유형 해당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여가활동부족형
	B(S.E)	B(S.E)	B(S.E)	B(S.E)	B(S.E)
연령	0.0151 (0.0183)	-0.0125 (0.0132)	0.0234 (0.0143)	-0.0587 *** (0.0110)	0.0243 ** (0.0075)
성별(=남)	-0.1787 (0.2332)	0.0565 (0.1501)	0.1934 (0.1905)	-0.6029 *** (0.1273)	0.2624 ** (0.0907)
배우자유무(=무)	0.1525 (0.2598)	0.5467 ** (0.1837)	-0.2183 (0.1958)	-0.2341 (0.1461)	-0.0409 (0.1017)
자녀동거여부 (=아니오)	-0.0773 (0.3284)	0.2026 (0.1999)	-0.2744 (0.2632)	-0.0725 (0.1603)	0.0389 (0.1183)
가구원수	-0.0799 (0.1196)	0.0334 (0.0741)	-0.0573 (0.0944)	-0.0845 (0.0650)	0.0507 (0.0448)

종속변수: 1=각 유형 해당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여가활동부족형
	B(S.E)	B(S.E)	B(S.E)	B(S.E)	B(S.E)
자가여부 (=아니오)	0.1090 (0.3376)	0.1904 (0.2349)	0.0568 (0.2496)	-0.3528 * (0.1607)	0.0836 (0.1220)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0.0099 (0.4274)	0.5393 (0.3085)	0.7097 * (0.3338)	-0.1420 (0.1544)	-0.0981 (0.1282)
도지역	0.9994 ** (0.3547)	1.4279 *** (0.2720)	1.0196 ** (0.3064)	-0.3819 ** (0.1409)	-0.4859 *** (0.1133)
교육수준(=무학)					
초졸	-0.2880 (0.2409)	0.3967 * (0.1688)	-0.0814 (0.1838)	0.5399 ** (0.1704)	-0.2395 * (0.1016)
중졸이상	-0.7361 * (0.3038)	0.0824 (0.2028)	-0.3377 (0.2353)	0.7541 *** (0.1784)	-0.1710 (0.1156)
취업여부 (=아니오)	-0.5363 * (0.2387)	0.3238 * (0.1439)	0.3768 * (0.1757)	-0.8999 *** (0.1400)	0.2599 ** (0.0903)
만성질환유무 (=무)	-0.0739 (0.1989)	-0.0354 (0.1327)	0.1817 (0.1568)	-0.2359 * (0.1114)	0.1025 (0.0783)
일상활동제한여부 (=아니오)	-1.2687 ** (0.4701)	-0.4839 (0.2486)	-0.4327 (0.2701)	-0.3744 * (0.1828)	0.6105 *** (0.1327)
가족돌봄여부 (=아니오)		-0.0370 (0.3542)	0.3971 (0.4137)	-1.1073 * (0.4323)	0.5584 * (0.2422)
빈곤가구여부 (=아니오)	0.2574 (0.3026)	0.0766 (0.1874)	0.1588 (0.2289)	-0.0096 (0.1652)	-0.0852 (0.1133)
ln(가구소득)	0.1721 (0.1475)	0.0210 (0.0803)	0.1397 (0.1121)	0.1717 * (0.0793)	-0.1345 * (0.0519)
ln(가구자산)	0.1167 * (0.0588)	-0.0159 (0.0304)	0.0019 (0.0324)	0.0520 * (0.0245)	-0.0334 (0.0171)
ln(가구부채)	-0.0428 (0.0249)	-0.0101 (0.0149)	-0.0329 (0.0194)	-0.0124 (0.0119)	0.0218 * (0.0087)
상수	-7.0023 *** (1.9039)	-3.6291 ** (1.2477)	-6.3378 *** (1.4616)	1.6421 (1.0500)	0.3864 (0.7183)
Log likelihood	-473.3	-913.0	-716.5	-1200.7	-2084.5
N	3,678				

주: *** p<0.001, ** p<0.01, * p<0.05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표 9. 여가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계효과

종속변수: 1=각 유형 해당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여가활동부족형
	dy/dx	dy/dx	dy/dx	dy/dx	dy/dx
연령	0.0003 (0.0004)	-0.0007 (0.0007)	0.0010 (0.0006)	-0.0049 *** (0.0009)	0.0047 ** (0.0015)
성별(=남)	-0.0041 (0.0054)	0.0032 (0.0084)	0.0080 (0.0078)	-0.0525 *** (0.0115)	0.0512 ** (0.0178)
배우자유무(=무)	0.0033 (0.0056)	0.0287 ** (0.0090)	-0.0095 (0.0088)	-0.0201 (0.0129)	-0.0079 (0.0195)
자녀동거여부 (=아니오)	-0.0017 (0.0071)	0.0119 (0.0123)	-0.0108 (0.0098)	-0.0059 (0.0129)	0.0075 (0.0227)
가구원수	-0.0018 (0.0027)	0.0019 (0.0042)	-0.0024 (0.0040)	-0.0070 (0.0054)	0.0098 (0.0087)
자가여부 (=아니오)	0.0024 (0.0071)	0.0102 (0.0120)	0.0024 (0.0102)	-0.0319 * (0.0157)	0.0164 (0.0241)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0.0002 (0.0095)	0.0345 (0.0221)	0.0358 (0.0196)	-0.0115 (0.0121)	-0.0192 (0.0254)
도지역	0.0214 ** (0.0073)	0.0763 *** (0.0135)	0.0409 *** (0.0115)	-0.0327 ** (0.0124)	-0.0920 *** (0.0209)
교육수준(=무학)					
초졸	-0.0062 (0.0050)	0.0236 * (0.0106)	-0.0034 (0.0076)	0.0482 ** (0.0161)	-0.0471 * (0.0203)
중졸이상	-0.0150 ** (0.0057)	0.0047 (0.0117)	-0.0136 (0.0090)	0.0698 *** (0.0180)	-0.0335 (0.0229)
취업여부 (=아니오)	-0.0110 * (0.0045)	0.0193 * (0.0091)	0.0170 * (0.0085)	-0.0658 *** (0.0089)	0.0490 ** (0.0166)
만성질환유무 (=무)	-0.0017 (0.0045)	-0.0020 (0.0075)	0.0076 (0.0065)	-0.0198 * (0.0094)	0.0199 (0.0152)
일상활동제한여부 (=아니오)	-0.0193 *** (0.0046)	-0.0234 * (0.0102)	-0.0158 (0.0085)	-0.0279 * (0.0121)	0.1051 *** (0.0199)
가족돌봄여부 (=아니오)		-0.0020 (0.0193)	0.0198 (0.0242)	-0.0613 *** (0.0147)	0.0942 ** (0.0348)
빈곤가구여부 (=아니오)	0.0058 (0.0068)	0.0043 (0.0105)	0.0067 (0.0096)	-0.0008 (0.0137)	-0.0165 (0.0219)
ln(가구소득)	0.0039 (0.0033)	0.0012 (0.0045)	0.0059 (0.0047)	0.0143 * (0.0066)	-0.0260 ** (0.0100)
ln(가구자산)	0.0026 * (0.0013)	-0.0009 (0.0017)	0.0001 (0.0014)	0.0043 * (0.0020)	-0.0065 (0.0033)
ln(가구부채)	-0.0010 (0.0006)	-0.0006 (0.0008)	-0.0014 (0.0008)	-0.0010 (0.0010)	0.0042 * (0.0017)

주: *** p<0.001, ** p<0.01, * p<0.05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여가활동부족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일상활동제한여부, 가족돌봄여부, 가구소득, 가구부채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여성인 경우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0.5%와 5.1%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을 기준으로 초졸인 경우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4.7%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10.5% 증가하고,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9.4% 증가하였다. 경제수준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2.6% 감소하지만, 부채가 증가할수록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여성일 경우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반대로 운동참여형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 경우 운동참여형과 친목교류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은 -2.6% 감소하였다. 또한 수발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취업중인 경우 운동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수준의 소득지원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적으로 가족돌봄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서비스 확대, 무상보육지원 등은 노년층의 여가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순서형 로짓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지만, 주로 2~3점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1.불만족 및 매우불만족, 2.보통, 3.만족 및 매우만족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⁶⁾. 또한 삶의 만족도는 생활전반, 여가활동, 가족관계,

⁶⁾ 매우 불만족과 매우 만족은 각 여가활동 유형별로 비율이 1~6%로 낮은 수준이며,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경제적 상태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활동 및 생활전반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가활동만족도는 생활만족도의 한 부분이며 정확하게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여가활동 유형의 영향요인에서 활용된 설명변수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생활전반 만족도의 영향요인에는 여가활동 만족도와 군집분석에 의한 여가활동유형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분석대상은 운동참여형 1명이 여가활동 만족도에, 여가활동부족형 2명이 생활전반 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를 제거한 후 총 3,675명이 되었다.

먼저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8~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부족형을 제외하고 만족(매우 만족 포함)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운동참여형은 모든 유형 중에서 만족 비율이 3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여가활동부족형 순으로 만족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여가활동부족형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장 불만족이 적은 유형은 친목교류형으로 5.4%로 나타났다.

표 10.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활동 및 생활전반 만족도

(단위: %)

구분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여가활동부족형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매우)불만족	5.4	14.3	18.0	15.0	24.5
	보통	61.6	53.8	55.5	47.7	53.0
	(매우)만족	33.0	31.9	26.5	37.3	22.5
	계	100	100	100	100	100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불만족	5.4	8.1	10.6	11.6	16.5
	보통	59.8	54.2	60.3	46.8	53.4
	(매우)만족	34.8	37.7	29.1	51.6	30.1
	계	100	100	100	10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한 3,675명 대한 통계치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생활전반 만족도는 운동참여형을 제외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3~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만족 비율이 약 29~38%로 높았다. 운동참여형은 만족 비율이 51.6%로 가장 높고 보통이 46.8%로 나타났다. 생활전반 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족 비율이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은 여가활동부족형(16.5%)과 친목교류형(5.4%)로 파악되었다.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1)에 의하면, 여가활동부족형을 기준으로 모든 여가활동 유형은 여가활동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참여형과 자연지향형, 친목교류형인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정적놀이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에 자녀동거유무와 거주지역, 교육수준, 건강수준, 경제수준도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자녀동거유무와 건강수준, 빈곤가구여부, 부채수준은 여가활동만족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으며, 거주지역(서울 대비 도)과 교육수준, 자산수준은 정적인 관계로 파악되었다.

한편 여가활동유형이 생활전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2)에서는 여가활동유형과 생활전반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가활동 만족도와 생활전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0.1%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 생활전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여가활동유형이 생활전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가활동 만족도를 통해 생활전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 외 설명변수를 살펴보면, 모형1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생활전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가활동 만족도 모형에 비해, 생활전반 만족도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증가하였다. 이들 영향요인은 배우자유무와 자가여부, 가구소득이다. 이중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일 경우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생활전반 만족도는 여가활동 만족도에 비해 경제수준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배우자일 경우도 생활전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표 11. 여가활동 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순서형 로짓모형

종속변수: 1=불만족, 2=보통, 3=만족	모형1: 여가활동	모형2: 생활전반
	B(S.E)	B(S.E)
연령	-0.0035 (0.0063)	-0.0034 (0.0072)
성별(=남)	-0.0423 (0.0790)	0.0885 (0.0915)
배우자유무(=무)	0.0180 (0.0861)	0.2597 (0.0984)**
자녀동거여부(=아니오)	-0.3860 (0.1005)***	-0.4529 (0.1160)***
가구원수	-0.0001 (0.0367)	0.0000 (0.0421)
자가여부(=아니오)	0.0660 (0.1043)	0.6272 (0.1158)***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0.0029 (0.1057)	-0.1800 (0.1201)
도지역	0.2224 (0.0958)*	0.2633 (0.1090)*
교육수준(=무학)		
초졸	0.1838 (0.0854)*	-0.0196 (0.0959)
중졸이상	0.4906 (0.0981)***	0.2562 (0.1118)*
취업여부(=아니오)	0.0863 (0.0783)	0.3973 (0.0920)***
만성질환유무(=무)	-0.4390 (0.0679)***	-0.2851 (0.0783)***
일상활동제한여부(=아니오)	-1.6140 (0.1051)***	-1.5372 (0.1122)***
가족돌봄여부(=아니오)	-0.3363 (0.1836)	-0.1004 (0.2128)
빈곤가구여부(=아니오)	-0.2726 (0.0947)**	-0.3840 (0.1073)***
ln(가구소득)	0.0774 (0.0409)	0.1802 (0.0449)***
ln(가구자산)	0.0534 (0.0140)***	0.0583 (0.0152)***
ln(가구부채)	-0.0181 (0.0074)*	-0.0180 (0.0086)*
여가활동 만족도(=보통이하)		3.2019 (0.1080)***
여가활동유형(=여가활동부족형)		
친목교류형	0.5963 (0.1848)**	-0.0852 (0.1681)
자연지향형	0.3606 (0.1255)**	0.0464 (0.1252)
정적놀이형	0.2114 (0.1477)	0.0220 (0.1477)
운동참여형	0.4686 (0.1056)***	-0.0090 (0.2213)
cut1	-0.8312 (0.5989)	0.0506 (0.6818)
cut2	1.8774 (0.5997)	3.7975 (0.6856)
Log likelihood	-3,410.1317	-2,541.6521
N	3,675	

주: *** p<0.001, ** p<0.01, * p<0.05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이상의 결과 운동참여형은 여가활동 및 생활전반 만족도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자연지향형과 친목교류형은 정적놀이형 및 여가활동부족형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가여부와 가구소득이 생활전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여가활동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제수준은 생활전반 만족도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와 관련성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실태를 파악한 후, 군집분석을 통해 여가활동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가활동 유형별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년층의 여가활동은 미디어매체 활용과 같은 수동적인 형태에 93%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및 단체활동 등 사회참여와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의 참여비중이 1% 내외로 저조하였다. 그러나 참여시간은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와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수동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문화예술관람 및 창조적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년층 여가활동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노년층이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현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예산 부족 등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 실시율이 낮은 실정이다.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배치비율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정책적 예산 배려 등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원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노인의 복지관·노인교실 등 프로그램 참여비율이 4.9%로 비빈곤노인의

7.2%로 보다 낮았다. 따라서 노년층의 여가활동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빈곤노인은 사설학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여가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단이므로, 한정된 공공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우선 수혜자는 빈곤노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노인여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년층의 여가활동은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여가활동부족형의 5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친목교류형은 친목활동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며 전체 노년층의 3%에 해당된다. 자연지향형은 화초·정원손질과 애완동물 기르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전체 노인층의 약 7.6%를 차지한다. 정적놀이형은 화투·장기·바둑·카드놀이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전체 노인층의 약 5.9%에 해당된다. 운동참여형은 모든 여가활동 중 등산·배드민턴·요가 등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장 길며 전체 노인의 약 11.5%를 차지한다. 여가활동부족형은 전체 노인의 72%에 해당하며 두드러진 여가활동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여가활동참여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1/4~1/7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정책은 대상에 따른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여가활동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친목교류형은 건강수준이 양호하고 자연친화형은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노년층이 많았다. 또한 정적놀이형은 가족자원 및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그리고 운동참여형은 경제수준이 가장 높고, 여가활동부족형은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친목교류형과 자연친화형은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낮고 건강수준이 양호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운동참여형은 향후 지속적으로 운동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경제수준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은 금전적인 인센티브 보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가활동부족형은 특별한 여가활동없이 무위의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으로 판단된다. 여가활동부족형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보건소와 경로당이 연계하여 건강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건강수준이 낮은 노년층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 가정배달’ 형식의 지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여가활동 유형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노년층 여가활동 지원정책의 최우선 목표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노년층 여가정책의 관심유형인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고, 수발가족이 있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고연령의 여성일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고, 도지역에 거주할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수준 관련 변수는 계수값이 크지 않고, 취업 중인 노년층은 여가시간의 무료함에 노출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정책개입의 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일상활동 제한여부와 가족돌봄여부, 거주지역 변수의 계수값이 상대적으로 큰 따라서 노년층의 여가활동지원은 도시에 거주하며, 건강수준이 낮고, 돌보는 가족이 있는 노인이 정책의 최우선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가활동부족형이 취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직접 손자녀 돌봄·간병 등 가족돌봄에 시간을 소비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경제수준이 좋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지원의 가족돌봄서비스가 확대·제공된다면 일정수준까지 노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여가활동 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운동참여형은 여가활동 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자연지향형 및 친목교류형은 정적놀이형 및 여가활동부족형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자가여부 및 가구소득은 생활전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여가활동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경제수준은 생활전반 만족도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와 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내용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노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 세대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청장년시절을 보내면서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여가는 상류계층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태현, 2007). 그러므로 계층에 상관없이 노년층에게 여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여가활동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접근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층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는 분명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에 비해 이용률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에 여가활동시설을 이용하던 노년층만이 확대시설의 수혜자가 되며, 신규 수혜자의 증가는 미미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의 하나는 노년층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황남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후소득, 고령자 사회참여(노동, 여가, 자원봉사), 세대 간 형평성,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등 이다. (E-mail: nhui@kihasa.re.kr)

참고문헌

- 김남진(1999). 규칙적인 운동 참여 여부와 그 정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3), pp.51-64.
- 김진욱(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pp.149-177.
- 김태현(2007). 노년학, 개정판, 경기도: 교문사.
- 나향진(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pp.53-70.
- 이천희(1982). 도시고령자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 pp.65-78.
- 정책브리핑(2012).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6484>. 2013.8.14. 인출.
- 허준수(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pp.227-247.
- Gordon, C., Gaitz, C. M., Scott, J. (1976).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In R.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p.310-341.
- Iso-Ahola, S.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Iowa; W. C. Brown Company Publishers.
- Jenkins, K., Pienta, A., Horgas, A. (2001). Activ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Research on Aging*, 24(1), pp.124-149.
- Lennartsson, C., Silverstein, M. (2001). Does engagement with life enhance survival of elderly people in Swed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6(6), pp.S335-342.
- Ljungquist, B., Sundstrom, G. (1996). Health and social networks as predictors of survival in old age.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24, pp.90-101.
- McGuire, F. (1984).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s*, 3, pp.313-326.

- Parker, S. (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New York; Praeger, 2. Balling.
- Riddick, C., Stewart, G. (1994). An examination of the lif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leisure in the lives of older female retirees: a comparison of blacks to whi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1), pp.75-80.
- Searle, M., Iso-Ahola, S. (1989). Determinants of leisure behavior among retired adults,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2, pp.38-46.
- Tinsley, H., Colbs, S., Teaff, J., Kaufman, N. (1987). The relationship of age, gender, health and economic status to the psychological benefits older report from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Leisure Sciences*, 9, pp.53-65.

부록

부표 1. 여가활동 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중
목욕, 낮잠 등	1,762	43.4
TV시청, 라디오 청취	3,790	93.4
요가, 단전호흡, 목상	28	0.7
컴퓨터 인터넷	114	2.8
독서	131	3.2
화초·정원손질, 텃밭 가꾸기, 애완동물 기르기	655	16.1
놀이(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425	10.5
노인학교, 교양강좌, 사회교육원, 복지관 내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	238	5.9
공연 또는 전시관람(연극, 영화,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	12	0.3
서예, 사군자, 그림, 노래, 춤 등 창조적 활동	34	0.8
혼자하는 운동(조깅, 낚시, 산책, 등산, 수영 등)	1,263	31.1
여럿이 하는 운동(배드민턴, 춤, 족구 등)	57	1.4
소풍, 관광 등 여행	43	1.1
가족동반 외식, 외출	358	8.8
가족돌보기(손자녀 등)	167	4.1
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 동네주민과의 대화	2,411	59.4
사회봉사활동	46	1.1
종교활동	699	17.2
정치단체나 사회단체 활동	9	0.2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 친목활동	1,008	24.8
기타	22	0.5

주: 주말과 주중을 구분하지 않고 지난 1주일간 여가활동참여 형태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부표 2. 주요변수의 결측치 제거 전·후 여가활동 유형별 비중 비교

(단위: %, 명)

구 분	전체	친목교류형	자연지향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여가활동 부족형
전	100 (4,059)	3.0 (121)	7.6 (308)	5.9 (239)	11.5 (466)	72.0 (2,925)
후	100 (3,678)	3.1 (112)	7.4 (273)	5.1 (189)	11.5 (422)	72.9 (2,682)

주 : 결측치 제거 전은 개인자료만을 대상으로 노년층의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것이며, 결측치 제거 후는 각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상태 등 가구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결합한 후의 자료임.
 자료: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Stata 11버전

The Categorization of Leisure Activities for Older People in Korea

Hwang, Namhu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objectives to assess the status of leisure activities for older people in Korea using the fourth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attern of leisure activities is in 5 types - less leisure, playing indoor games, engaging in physical activities, enjoying in nature, engaging in social activities. Older people in Less leisure are less participated in leisure activities than the other types and its type accounts for 72% of all older people. And age, gender, health status and economic level are effects on the leisure activities pattern. Therefore, it is the target group who older poor females with restriction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st of Korean older people spend or kill their time without certain leisures and accordingly it is needed a special political attention to support for older poor females.

Keywords: Categorization of Leisure, Leisure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Older People